



텍 매크로 파일 만들기

플레인 텍으로 만드는 레시피 카드

남수진

2017년 2월 11일 토요일

2017 한국텍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
동국대학교 법학관 B253호

왜 플레인 텍인가?

- 도널드 크누스가 만든 텍 시스템, “**virgin**” T_EX
 - 매크로가 하나도 없는 갓난 아이 같은 텍. 순수 그 자체
 - 문서 작성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.
- 순수 텍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과 편리한 매크로들을 제공한다.
- “텍 포맷 파일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.” 라는 표본 제시

- 우리가 흔히 문서 작성할 때 텍이라고 부르는 것
- 고품질의 조판을 위한 문서 작성 시스템
-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구조를 갖춘 문서 작성에 제격이다.
- 클래스 파일, 다수의 패키지 파일과 복잡한(?) 글꼴 세팅이 필요하다.

```
\documentclass[a4paper,tocentry,microtype]{oblivoir}  
\usepackage[dbl4x6]{fapapersize}  
\usepackage[dvipdfmx]{graphicx}  
\usepackage{hyperref}  
\usepackage{wrapfig}  
\usepackage{caption}  
...
```

Questions and Answers with Prof. Donald E. Knuth, TUGboat **17** (1996), 7–22

Silvio Levy: How come you don't use L^AT_EX? [*laughter*]

Don: How come I don't use L^AT_EX? [*laughter*] I'm scared of **large systems!** [*louder laughter*] Bart?

플레인 텍을 사용하면

- 매년 새롭게 나오는 텍라이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.
- 심심할 때마다 `tlmgr update --all --self`를 칠 필요가 없다.
- 20년 전에 만들었던 텍 문서가 여전히 잘 컴파일 된다.
- 프리엠블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. 폰트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,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.
- 한글 문서라면, `\input kotex.sty` 한줄로 끝.
- 자신만의 간단한 매크로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.

구조적이지 않고 일정한 틀이 없는 간단한 문서 작성에는 플레인 텍을 사용해 보자.

레시피 카드 매크로

- 백슬래시 없이도 명령어 역할을 하는 문자
- 플레인 텍에서는 ~
- 주로 `\let`을 이용하여 명령어로 동작한다.

```
\catcode'\*=13 \let*=\medskip
```


\obeylines

- 텍스트 엔터(CR)도 간격을 나타내는 문자로 인식한다. (^~M)
- 엔터를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 그대로!

```
{\obeylines
Roses are red,
\quad Violets are blue;
Rhymes can be typeset
\quad With boxes and glue.
\smallskip}
```

```
Roses are red,
    Violets are blue;
Rhymes can be typeset
    With boxes and glue.
```

```
\def\obeylines{\catcode'\^~M=13 \let^~M=\par}
```

- The T_EXbook
- TUG95, Questions and Answers with Prof. Donald E. Knuth
- Macros for Jill
- github.com/sjnam/TeX

감사합니다